

상주 양진당과 대산루의 동선요소 분석

Analysis on the moving line of Yangjundang and Daesanru in Sangju

이승우* / Lee, Seung-Woo

Abstract

In the Western and Oriental architecture, corridor and stairs have not been important from the whole architectural composi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ir elements from theoretical viewpoint of modern architecture. The subject of analysis are Yangjindang and Daesanru of the Mid-Chosun Dynasty in Sangju.

The conclusions are the followings : First, the moving line in the Western and Oriental architecture has the linear axis, and in general moving axis is straighten in Hanok architecture. But unlike common traditional architecture, the two buildings are right-angled in the moving axes. Second, Toenmaru in Yangjindang is the element of visual experience in the whole architectural space as promenade architecture called by Le Corbusier. On the other hand, Toenmaru in Daesanru plays a role the space of thinking in extending a visual field to the nature than its pure function. Third, the stairs of Yangjindang is diagonal shape with a role of entrance, but that of Daesanru was concealed in the wall as interior step. Yangjindang has two different stairs. One is broad and shallow stairs with ceremonial or public expression, and the other is narrow and steep stairs with unstable or private expression. This paper intends to show the latent architectural possibility of our traditional architecture.

키워드 : 양진당, 대산루, 툃마루, 계단
Keywords : Yangjindang, Daesanru, Toenmaru, Stairs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인간은 태초에 생활을 위한 목적 공간이 필요하였고, 이것은 건축이 계획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아주 오래전 우리의 건조물은 기능이 분화되지 않은 하나의 큰 공간에서 모든 생활이 가능하였고, 목적 공간으로 이동을 위한 과정 공간이 크게 필요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생활은 점점 복잡해졌고, 그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목적 공간들이 분화되기 시작하였다. 동선요소는 인간을 이들 목적 공간으로 이끄는 필수요소가 되었으며, 수평의 2차원적 이동뿐만 아니라 상하 레벨의 3차원의 이동까지 담당하였다.

이들 동선요소들은 오래전부터 서구 건축이나 우리 전통건축에서 나타났는데, 그 대표적인 요소가 수평공간을 연결하는 복도와 수직공간을 연결하는 계단이다. 그러나 동서양을 막론

하고 이들 동선요소들은 근대시기 이전까지는 건축계획상에서 중요하게 취급되지는 않았다. 근대건축 이후 몇몇 이론가들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피력되었다.

우리 한옥 건축의 경우 특히 대지에 밀착된 수평적 선형배치가 특징으로 수직적 직층을 연결하는 동선요소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대개 기단, 툃마루와 대청마루 등 공간과 공간을 잇는 매개적 동선요소가 전체적인 배치를 좌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근대이후 몇몇 이론가들에 의해 다루어진 이론의 관점에서 우리 전통건축의 동선요소를 분석하고, 의미를 파악하는데 그 목표를 둔다.

본 연구의 의의는 건축계획 과정에서 동선요소의 역할과 의미를 한번더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며, 우리 전통 한옥건축에서 나타나는 동선요소의 이론적 잠재성을 일깨우는 데 기여할 것이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동선요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서 이론적

* 정회원, 경북대학교 건축공학부 조교수

준거를 정하였다.

첫째는 동선요소의 시간성 초월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이들 동선요소들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나타났고, 큰 변화도 겪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요소들은 연대기적 시간성을 초월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도 동시대적 비교 연구가 아닌 서구의 근·현대건축 이론 중 동선요소와 관계되는 이론들로 그 체계를 세웠고, 이들 체계가 전통 한옥 건축을 분석하는 이론적 틀이 되었다.

둘째는 주지하다시피 동선요소들이 항상 기능을 수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동선요소는 기본적으로 수평공간과 수평공간 혹은 서로 다른 레벨의 공간 연결을 위한 매개공간이다. 또한 이들은 인간의 보행과정을 제어하면서 건축공간 속에서 움직임을 유발시킨다. 따라서 이들 동선요소는 건축구성상의 배치관계에 따라 공간적, 형태적 특성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인지적, 감각적 체험도 다르게 만든다. 본 연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철학적 사고내지는 관념적 해석보다는 동선요소의 형태 그 자체 혹은 공간이나 형태와 관련된 건축전체의 물리적 질서내의 요소로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의 대상은 상주지역에 있는 전통 한옥건축 중에서 양진당과 대산루로 정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주지역은 위치상으로 중부지역이면서, 건축배치에서는 북방의 건축문화적 양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동시에 요소적 측면에서는 남방문화적 성격도 보여주고 있다. 이들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둘째, 상주 양진당은 중층의 고상식 주거가 특징인데, 층이 들어 올려져 있어 계단의 배치가 필요하고, 전체 내부공간의 연결을 위해 동선요소인 툇마루가 설치되었다. 대산루는 T자형 매스로 구성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게 연결 부분에 내부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연구의 방법은 우선 관련 문헌과 자료를 수집하고, 근현대건축의 이론적 분석틀을 정립하였다. 이들 분석틀이 때론 주관적일 수도 있겠지만, 전제한 이론적 배경 하에 대상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론 체계를 갖추었다. 분석 체계를 정립한 다음 대상 건축물인 양진당과 대산루를 답사하였고, 이들에 대한 문헌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 건축물의 동선요소를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2. 동선요소로서의 통로와 계단

동선(動線)이란 인간이 공간에서 어떤 목적이나 작업을 위해 이동할 때 생기는 족선이다. 즉, 목적 공간으로 향하는 방향성이 내포된 인간이동의 순환경로이다. 여기에 자리 이동의 의미인 전이(轉移, transference)의 의미도 내포한다. 이러한 동선요소는 근대이후 많은 건축가들의 주요 인식요소가 되었다.

서양건축역사를 살펴보면, 중세이전까지는 이러한 동선요소를 중요하게 취급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단지 공간과 공간을 연결하는 매개로서의 역할만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근대 이후 인간이 공간을 이동체험하며 공간 그 자신의 행위를 통한 진행적 인식을 지각하고 체험하게 되면서 호돌로지 공간(Hodological Space) 개념을 도입한다. 따라서 동선은 공간과 공간의 최단거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포함한 안전성, 움직임, 인지성 그리고 변화성 등 다차원적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공간에서 이러한 동선요소는 크게 수평 이동 공간인 통로와 수직 이동 공간인 계단이 있다.

2.1. 수평이동요소-통로

통로는 대체로 선형적 속성이 지니고 있다. 이러한 통로는 축성을 통한 움직임과 긴장감을 유도하면서 방향성을 갖는다. 이러한 통로의 유형을 F. D. K. Ching은 크게 6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선형, 방사형, 나선형, 격자형, 망형 그리고 복합형이 그것인데, 이들은 각 공간패턴에 따라 적용방법을 달리하면서 건축적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¹⁾ 여기서 통로는 건축공간에서 뚜렷하게 축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축은 실제적인 이동과 공간을 상호 조직하는 매개체가 된다.

통로는 또한 공간에서 목적 공간으로 이끄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움직이는 사람의 행동범위를 한정하면서 목적성을 띄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 공간은 통로에 의해 이끌린 한 공간일 수도 있고, 통로와의 관계에서 생성된 장소일 수도 있다. 특히 슐츠(C. N. Schulz)는 통로에 의해 영역을 구조화함으로써 장소를 소유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²⁾ 이들 구조화는 중심과 선형, 중심과 축, 축과 장소 등이 서로 결합되고 체계화되면서 건축구성이 완결된다.

반면에 목적 공간으로 이끄는 지향성을 약화 시킨 근대건축 개념 중의 하나가 르 꼬르뷔제가 제창한 건축적 산책로이다. 그는 목적 공간을 도달하기에 앞서 건축 내부에서 연속적인 움직임을 강조하면서 자연을 향한 풍경 등의 감각적 체험을 제공한다. 즉 건축적 산책로는 연속적인 공간 체험을 바탕으로 한 인지적 체험의 확장을 위한 동선체계의 조합인 것이다.

<표 1> 수평이동요소로서의 통로

구분	영향 요인	특성
통로	- 복도 - 툇마루	- 진입과 선형적 축성 - 건축적 산책로 - 공간적 체험 - 감각적 확장 - 지향성 - 목적성

2.2. 수직이동요소-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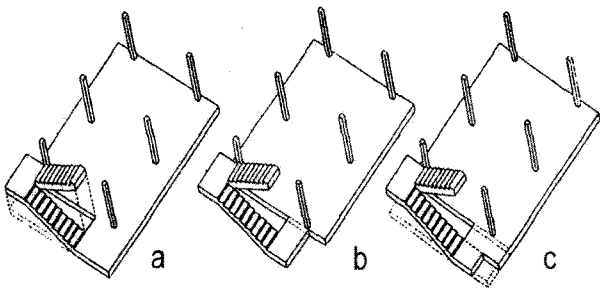
수직레벨 이동요소인 계단은 아주 오래전부터 생겨났다. 아

1)Ching, F.D.K., 건축의 형태 공간과 규범, 박경서 역, 건우사, 1989, pp.270-285.

2)Schultz, C. N., 실존, 공간, 건축, 김광현 역, 태림문화사, 1991, pp.44-55.

마도 이것의 유래는 고대인들이 전쟁시 이용한 사다리나 기단 등에서 출발한 것으로 추측된다. 13세기 이후 계단은 이전의 군사적 혹은 중속적 기능에서 커뮤니케이션과 장식의 위한 도구로서 취급되었다.³⁾ 르네상스와 바로크 시기를 거치면서 모뉴멘탈하고, 제국양식의 계단 등이 나타났고, 18세기에는 대칭을 이루며 둘로 갈라지는 계단이 유행하였다. 그러나 이때까지의 계단은 전체 공간에서 레벨 차를 극복하는 부속공간이었다. 건축공간에서 움직임의 통한 공간적 체험, 시각과 촉각의 인지성, 공간 폐쇄와 개방의 공간 특성에 대한 계단의 역할은 근대이후의 건축에서 나타나게 된다.

근대건축에서 계단의 역할은 크게 2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수평재의 슬라브에 수직성과 사선의 방향성을 부여하였다. 둘째 인간의 움직임과 공간적 체험에 대한 인식과 이미지를 시각화하려는 의도를 가졌다.⁴⁾ 르 꼬르뷔제가 창안한 도미노에서의 계단은 근대정신을 이룩하면서, 이론적 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피터 아이젠만(Peter Eisenman)은 이 도미노 구조를 슬라브와 계단과의 상관관계에서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계단 슬라브의 삭제로서, 계단을 차지하는 슬라브 코너부분이 삭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계단 슬라브의 부가로서, 계단과 참부분이 기존 슬라브에 부가된 형태로 이해된다. 마지막 유형은 계단 슬라브의 부가와 삭제가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계단부는 삭제 기법으로, 계단참부분은 부가의 기법이 함께 나타난다.⁵⁾ <그림 1> 삭제 기법은 이전의 완전한 형태를 우선하고, 삭제부분과 전체 형태간의 상호 대비적인 효과를 줄 수 있으며, 부가 기법은 구축적 성격으로 주된 매스와 상호 연관성을 가지면서 다양함을 표현한다.



<그림 1> P. Eisenman, 도미노구조에서 계단과 슬라브의 관계

계단형태에 관심을 가지면서, 시각적 인식과 충동을 결정하는 요인들에 대한 관점을 피력한 사람이 노르웨이 건축이론가인 에벤센(T. Thiis-Evensen)이다. 그는 저서에서 계단 자체

3) John Templer, Stair Shape and Human Movement, Ph. D. dissertation, Columbia, p.56.

4) 토미나가 유즈루, 근대건축의 공간분석, 고성룡 외 1 역, 기문당, 2002, pp.54-55.

5) Eisenman, P., Aspects of Modernism : Maison DOM-INO and the Self-Referential Sign, Oppositions 1979 winter/spring 15/16 MIT Press, p.126.

형태에서 특성을 표현하는 요인으로 폭, 경사, 부착 등에 관한 설명을 기술하고 있다.

계단 폭의 좁고 넓음은 우리 신체 측도와 함께 시각적 인식에서 비롯된다. 폭이 좁은 계단은 선박 혹은 협소한 공간에서 제한된 일부의 이용자를 위한 사적인 성격이며, 빠른 동작으로 신속하게 오르내리는 게 된다. 계단 재료는 주로 목재 혹은 철재 등이 많이 이용되며, 시각적으로 사선적인 형태를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형태에서 사선적 형상은 슬라브와 기둥의 수평과 수직체계에 역동성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에 폭이 넓은 계단은 많은 대중들이 이용하는 공공적 성격을 지니며, 느린 동작으로 서서히 오르게 되고, 심지어 계단 공간 자체가 휴식과 대화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 폭 넓은 계단은 건축물의 정면성을 강조하고, 레벨 차이를 이용한 의식과 행사 등이 열리기도 하며, 기념비적 성격을 갖는다.⁶⁾

단수는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계단 경사는 인간의 움직임을 유발하거나 방해하는 인지적 저항을 갖게 된다. 경사가 얇은 계단은 오르기 편리하며, 위험성도 적다. 시각적으로 안정되며 자연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반면에 경사가 급한 계단은 시각적으로 오르는 충동을 저지하며, 사다리와 같은 극단적 계단은 위험성도 크다. 이런 계단은 최상부의 신성하고 종교적인 시설 등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인내와 분투를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계단의 부착은 지반에 굳건히 내려앉은 석재 혹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고정된 것과 목재 혹은 철재 등의 재료로 가변적이고 자유롭게 선 계단으로 나눌 수 있다. 고정된 계단은 안정한 상태로 오르내릴 수 있으며, 땅이 지닌 물리적 성질을 공유한다. 반면에 가변적 계단은 자체가 불안정하여 움직임을 빠르게 유도하며, 다리의 성질을 공유한다. 이런 계단은 자체의 형태가 매우 개방적 성격을 가진다.⁷⁾ 그러나 이들 특성이 시간성 개념을 갖지 않으면 풍부할 수 없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시간동안 갖게 되는 시각적 체험과 인지는 정지된 계단의 형태 특성에 공간적 볼륨과 다양한 체험을 경험한다. 이것이 계단이라는 공간에서 일어나는 인지적 도그마인 것이다.

<표 2> 수직이동요소로서의 계단

구분	영향 요인	특성
계단형태	경사, 부착 및 재료, 폭	공적, 사적 표현 안정, 불안정의 표현 오르려는 의지의 저항
건축형태	계단의 위치	사선, 수직, 역동성
건축공간	계단의 위치	공간의 연결과 분리, 입구, 공간의 개방과 폐쇄, 위계성

6) Thiis-Evensen, T., Architype in Architecture, Norwegian Univ. Press, 1987, pp.89-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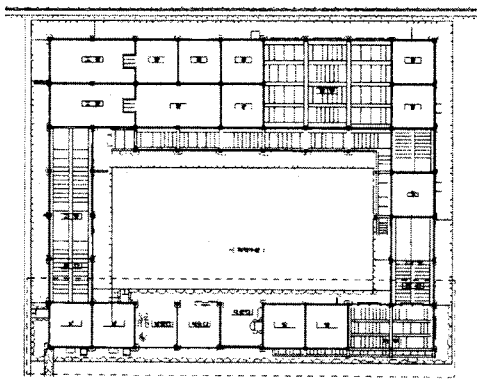
7) Thiis-Evensen, T., 전제서, pp.89-104. 이승우, 건축의 공간 및 형태구성에 있어서 계단의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 1993. pp.29-41.

3. 상주의 양진당과 대산루

16세기 이후 많은 유학자들은 관직을 그만두거나 벼슬을 사양하고 산촌에 은둔하면서 강학에만 몰두하게 된다. 특히 영남의 재지사족들은 계거(溪居)를 선호하면서 낙동강변에 복거를 하게 되는데, 대상 건축물인 대산루와 양진당은 이러한 조선중기에 영남 사림의 한 양상으로서 이해될 수 있다. 이들은 자연 속에서 주변 지형과 조화되어 배치되어 있고, 자유곡선의 처마와 구성 부재를 표현하면서 자연과 융화되어 있다.

특히 상주지역은 예로부터 지역적으로 영호남 지방과 중부 지방의 경계에 위치하면서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왕래가 많았고, 집성촌이 많지 않다. 또한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남쪽의 선산 및 성주 지역 문화와 중부의 유교적 안동문화가 혼재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는 본 연구의 특성상 이들 건축물의 역사적 전개는 중략하고, 건축물 자체에 대해서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양진당⁸⁾은 서기 1626년경 퇴계학파인 검간 조정이 창건한 풍양 조씨 종택이다. 창건시에는 99칸의 큰 집이었으나, 오랜 세월과 자연 재해 등으로 소실되어 ㄷ자형의 정침만이 잔영으로 남아 있다가, 1980년경에 실측조사와 함께 복구되었으며, 2005년 전면 정침 앞의 대문과 사랑채가 복원되어 트인 ㄷ자 형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그림 2>



<그림 2> 양진당의 복원평면도

ㄷ자형의 정침은 정면의 본채와 양익사로 구성되어 있다. 정면 본채는 정면 9칸, 측면 2칸 규모로 되어 있고, 겹집형태이다. 겹집은 북부지방의 색채가 짙는데, 양진당의 지리적 위치뿐만 아니라 그의 처가가 있는 안동지방의 건축적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다른 하나의 특징으로 이 종택은 층이 들어 올려진 난간(干欄)⁹⁾형의 고상식(高床式) 주거의 형태를 띠고

8) 자세한 사항은 다음 문헌들을 참고할 것. 상주 양진당 실측조사보고서, 상주군, 1981, 김봉렬, 앞과 삶의 공간 2, (주)이상건축, 1999, pp.126-134, 정명섭, 상주 양진당 중문간 및 사랑채의 복원, 상주문화연구 제15집, 2005, pp.27-35, 박명덕 외 1, 조선중기 동족마을의 증가 확산 성립과정 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권 4호, 1991.8, pp.9-11.

있다. 고상식 주거란 비가 많은 남방지역에서 지면의 습한 공기를 피해 마루와 바닥을 높인 주거형태이다. 본채의 동측에는 6칸의 큰 대청마루¹⁰⁾가 있는데, 고상식으로 들어올려져 있다. 또한 여기에는 이 마루와 겹집의 온돌방 등 내부공간을 연결하기 위해서 뒷마루가 설치되었다. 전면 본채를 살펴보면 정면은 반 층 정도 들어 올려져 있는 반면에, 배면은 평상으로 되어 있어 완전한 고상식은 아니다. 그러나 전면을 향해 4칸씩 뻗어 나온 양익사는 이층으로 건조되었다. 서익사는 전부가 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동익사는 앞쪽 2칸만이 2층으로 조영되었다. 전체적인 단면구성은 마당공간에서 반 층 올려진 정침공간과 다시 반 층 올려진 양익사로서 스킵 플로어 형식으로 되어 있다. 양진당은 남방문화의 고상식 마루와 북방적 요소인 구들이 설치된 절충된 형식으로 볼 수 있다.¹¹⁾

대산루는 유성룡의 제자이자, 조선중기 문신인 우복 정경세의 우산동천의 일부이다. 상주 우복의 우복종가¹²⁾, 계정¹³⁾, 도존당, 대산루 등의 건축물과 우복산 20경을 우산동천이라 하는데, 이것은 계정을 짓기 시작하면서 형성되었다. 퇴계 이래 영남 사림의 일원으로서 우복도 자연과 하나되어 학문에 경진하고자 이곳에 복거하였다. 그러나 그의 생전에는 초간정이라 일컫는 계정만이 조성되었고, 대산루를 비롯한 나머지 건축물은 그의 후대에 지어졌다. 특히 4대손 정주원과 그의 손자인 정종로에 의해 종가와 대산루 등이 건조된 것으로 사료된다.

대산루는 입제 정종로에 의해 1780년경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되고, 입제 선생의 강독처요 제자를 가르치는 강학소로서 활용되었다. 당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정의 다른 이름인 청간정은 개울 등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 청각적 느낌을 중요시 하였다. 반면에 대산루는 산을 대하는 누라 하며, 마주보는 산을 바라보는 대상으로 여겨 시각적 개방감을 표현하였다.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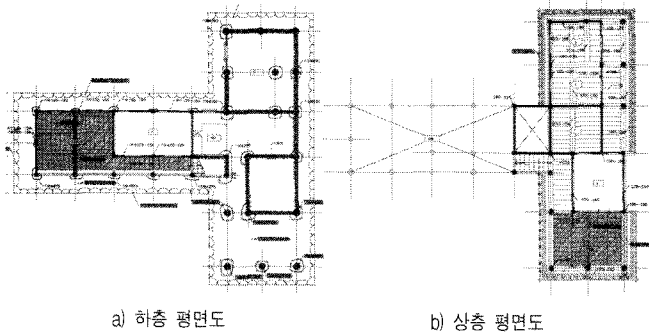
9) 습기와 벌레들을 피하기 위해 땅바닥을 높여 짓는데, 이것을 간란(干欄)이라 하였다. 이것의 원초적 형태는 원두막이고, 오르내리기 위해 사다리를 설치하였다.

10) 이 마루는 크기와 진입방식 등을 고려할 때 문중의 제사가 행해 질 시에 많은 제관들을 수용하기 위한 배려였다. 정명섭, 전계서, pp.27-35.

11)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열화당, 1995, p.109, p.176.

12) 우복종가는 조선 중기의 학자이자, 서애 유성룡의 제자인 우복 정경세(정경세) 선생의 종가로 우산팔경을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명당에 위치해 있다. 전체적인 배치는 뜰 ㄷ자형으로 구성되었다. 안채는 ㄷ자형으로 남서쪽에 배치되어 있다. 정면 4칸 측면 2칸의 홀처마 맞배지붕으로, 안방, 건넌방, 부엌, 대청 등이 배치되어 있다. 사랑채는 정면 5칸, 측면 1칸의 一자형으로 2단의 높은 기단위에 사랑방, 대청, 건넌방 등이 배치되어 있다. 안채의 동쪽에는 행랑채가 정면 5칸, 측면 1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문헌들을 참고할 것. 상주의 문화재, 상주시, 2003, pp.88-89. 윤일이, 17세기 퇴계학파의 건축관에 관한 연구-상주권 학맥을 중심으로,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4.5., pp.119-130. 이승우, 서양 근대건축이론으로 본 조선시대 건축문화, 한국사상과 문화, 한국사상문화학회, 2007, pp.348-370.

13) 대산루를 비롯한 우복종가와 계정, 도존당 등은 정경세 선생과 그 후손들의 세거지이다. 우복 정경세 선생이 우복산 20경인 우산동천의 명지에 복거하면서 초당인 계정인 그의 나이 41세인 1603년2월에 조영되었다. 그는 이 초당을 청간(聽澗)이라 명명하였다.



<그림 3> 대산루 평면도

우리 전통 한옥이 가진 선형적 특성이 여기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러나 대산루는 전통 한옥의 일반적인 평면형인 ㄱ 혹은 ㄷ자형이 아닌 T형의 평면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3> 남북축으로 된 평면은 각각 2칸의 마루와 온돌방으로 된 강학 공간이다. 동서축으로 배치된 건초물은 루 하부가 비워진 간난형의 고상식이고, 동시에 2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하층은 부엌과 창고 등의 서비스 공간과 루 하부로 이어져 있다. 강학공간에서 내부계단으로 연결된 집객과 수장 공간인 상층은 조망을 위해 루를 동쪽에 배치시켰다. 덧붙여 서쪽으로 1칸의 온돌방, 1칸과 2칸의 서고가 배치되어 있으며, 북쪽에 3칸의 툇마루가 설치되었다. 여기서 특이한 점 하나가 1칸의 온돌방이다.¹⁵⁾ 루와 계단을 오르면서 연결되는 이 온돌방은 사방으로 개구부가 설치되어 있다. 시각적 확장을 위한 북쪽의 창호를 제외하고는 상층의 모든 공간들과 연결되고 있다. 계다가 서쪽 서고 쪽을 가려면 이 온돌방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 온돌방은 상층 평면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면서 집객을 위한 공적 공간인 루와 사적인 서고 공간을 적절히 분리하고 있다.

4. 양진당과 대산루의 동선요소 분석

4.1. 동선요소의 축성

기본적으로 우리 전통 한옥은 자연의 일부분으로서 인간에 대한 환경적 배려로서 존재하였다. 자연과의 조화, 지형 지세에 순응하는 우리 전통 건축의 구성은 인간-건축-자연이 하나가 되는 삼위일체이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는 내부와 외부, 영역과 영역, 공간과 공간이 서로 위계를 가지면서 구성되었다. 이 공

간 위계는 공간의 계층적 질서를 갖게 됨을 의미하고, 이것은 전통 한옥의 배치 계획 중 선형적 속성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건축배치의 관점에서 전통 한옥의 선형적 속성은 진입공간에서 마당공간과 내부공간으로 이끄는 공간연결 속성과 이에 따른 동선요소의 축성 관계가 큰 특징이다. 여기서 언급할 양진당과 대산루의 진입축은 일반적이지는 않다. 양진당은 대문을 통한 진입공간을 지나면 마당공간이 나온다. 일반적인 전통 한옥의 경우 전면에 바로 출입 가능한 계단이 있고 기단을 통하여 내부로 진입하지만, 양진당은 좌측의 부엌쪽으로 가서 옆쪽에 설치된 계단을 통하여 올라간다. 대개 한옥 건축은 공간 위계별 축성을 그대로 동선의 축을 따라 반영하나, 양진당은 동선요소의 축성이 공간축성에 직각으로 교차하고 있다. 위치의 차이는 있지만, 대산루의 경우도 동서방향의 진입 축과 동선요소인 내부계단은 직각으로 교차하여 배열되어 있다.

4.2. 수평이동공간-툇마루

전통 한옥 건축에서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은 툇마루이다. 고상식 한옥인 양진당은 그 시발점이 여느 전통건축과 다르다. 양진당은 일반적인 한옥의 진입방식인 마당공간 - 기단 - 대청공간의 순으로 전개된 것이 아니라, 마당공간에서 기단이 없이 바로 계단을 통하여 툇마루로 연결되어 있다. 즉, 내부 공간으로 진입은 마당에서 좌측 부엌쪽으로 이동하여 툇마루 방향으로 전개된 계단을 따라 진입하게 된다. 목재로 된 계단을 조심스럽게 오르면, 길게 뻗은 툇마루가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이것은 고상식 마루와 각 공간을 연결하기 위한 앞퇴이다. 이 툇마루는 전체 평면에서 바닥이 부가된 형태를 띠고 있으며, 발코니의 역할을 하고 있다. 진입방향을 따라 걸으면 우측은 외부공간인 마당이 있고, 좌측은 벽과 방문 그리고 대청 개구부 등이 번갈아 나타나면서 투시적 원근감을 체험하게 된다. 이 툇마루는 다시 우측으로 꺾이면서 동익사를 따라 배치되어 있다. 최종적으로 툇마루의 끝에는 다시 마당공간으로 내려서는 좁은 목재계단이 있다. 이 가파른 계단을 내려서서 마당공간으로 나오면 양진당의 건축적 체험이 완성된다. 르 꼬르뷔제의 사보와(Savoye) 주택에 있는 중앙 램프처럼 이 툇마루는 전체 내부공간을 연결하면서 내외부의 시각적 체험이 가능하게 구성되었다. 차이점은 구조적 문제이기는 하지만, 르 꼬르뷔제의 건축에서는 이들이 주로 실내에 배치된 반면에, 양진당의 툇마루는 바닥이 부가되어 내부와 외부의 중간적 성격의 공간으로 처리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선형적 동선요소는 르 꼬르뷔제가 제창한 내외부 공간을 경험하고 시각적 즐거움을 갖는 개념인 건축적 산책로로서 전체 양진당을 경험하게 하는 통합인자인 것이다.




대산루에는 툇마루가 크게 2곳에 설치되어 있다. 하나는 상하층의 상이한 바닥판을 잇기 위해 설치된 계단의 양단부에 툇

14) 상주의 문화재, 상주시, 2003, pp.38-39. 이창업 외 1, 대산루의 조영 과정과 건축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1권 8호, 2005.8, pp.135-145. 우복 정경세 선생연구, 우복선생기념사업회, pp.188-201.

15) 1칸의 온돌방은 2층에 있다. 루와 인접한 2층의 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난방장치인 구들을 설치하였다. 김봉렬 교수는 루와 온돌을 함께 들이는 방법을 4가지로 설명하면서 이 대산루의 계획을 세밀함이 돋보이는 성공적인 사례로 설명하고 있다. 김봉렬, 앞과 삶의 공간 2, (주)이상건축, 1999, p.157.

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이들 툃마루는 1층과 2층의 강학공간과 루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에 두 번째로 언급 할 툃마루는 동선요소로서 기능적인 면에서 양진당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이것은 상층의 온돌방에서 서쪽으로 난 두 문 중에서 오른쪽 문을 열면 나타난다. 이것은 온돌방을 통하지 않고서는 들어설 수 없고, 이 툃마루를 통하여 서고에 들어설 수 있다. 온돌방-툃마루-서고로 이어지는 동선이다. 그러나 이 툃마루는 공간을 연결하는 동선공간이기 보다는 독립된 공간으로 강독과 사색을 위한 열람공간이다.¹⁶⁾ 라이트(F. L. Wright)의 구겐하임(Guggenheim) 미술관은 관찰자가 동선을 따라 움직이면서 작품 감상이 가능하도록 하지만, 이 툃마루는 그보다는 여유롭게 북측의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각적 감각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한다.

<표 3> 툃마루의 형태와 특징

구분	그림	특징
양진당		축성, 건축적 산책로 - 축성으로 인한 투시도적 원근감 효과 - 건축 내부의 공간적 체험
대산루	계단상 하부와 연결된 툃마루 	진입부와 공간의 연결 - 마당공간과 내부의 진입 공간 - 계단과 루의 연결
	상층 서고 툃마루 	다용도 공간 - 자연을 향한 시각적 확장 - 독서 및 사색을 위한 휴식 공간

4.3. 수직이동공간-계단

상기한 계단의 이론적 체계에서 본다면 양진당과 대산루의 계단은 서로 다르다. 우선 형태 및 재료적 관점에서 양진당은 계단이 모두 목재¹⁷⁾로 되어있고, 대산루는 석재 재료로 되어 있다. 형태적 관점에서, 양진당은 마루, 난간, 인방과 지붕선의 수평선과 기둥의 수직선이 갖는 직교체계에 역동적인 사선 형태를 취하고 있다. 베스닌(Vesnin) 형제의 프라우다(Pravda)지국 빌딩이나 마이클 그레이브즈(M. Graves)의 스나이더만(Snyderman) 주택처럼 구조체의 현란한 해결과 함께 사선의 역동적 형태를 띄지는 않았지만, 이 계단은 수평층의 반복에 대응하는 사선적 요소로서 시각적 조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에 대산루는 계단부의 외벽을 완전히 폐쇄된 고정계단으로 만들었다. 대문을 진입하면, 여기에 계단이 있는지 바로 눈치 채지 못한다. 단지 외벽 담장에 공사형의 문양으로 암시

16) 김봉렬, *삶과 삶의 공간 2*, (주)이상건축, 1999, pp.140-1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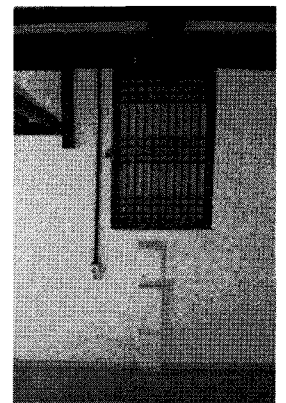
17) 복원되기 전 사진을 보면 마당의 오른쪽 좁은 계단은 없는 상태이다. 단지 휴과 돌 등으로 조금 높게 쌓여진 돌무덤만 있다.

만 하고 있다.

재료적 측면에서 본다면 또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양진당은 계단이 목재로 되어 있다. 이것은 대지에 굳게 안착된 것이 아닌, 가변적이고 임시적인 계단처럼 보인다. 계단 자체도 개방적이며, 올라가는 사람도 불안정하게 느끼고 조심스럽다. 다리의 성질을 공유하면서 우리의 움직임을 신속하게 만든다. 반면에 대산루의 계단은 석재로 되어 있고, 대지에 굳게 안착되어 있다. 계다가 상기한 바와 같이 외벽으로 막아서 폐쇄적이다. 대지가 지닌 물리적 성질과 함께 굳게 고정되어 있으며, 안정적이다. 오르는 이도 안전함을 느끼게 되며, 움직임 또한 느긋하다.

양진당에 있는 좌우측의 두 계단은 폭과 경사도 측면에서 서로 다르다. 주 진입을 위한 왼쪽 계단은 툃마루에 의해 결정되었지만, 폭도 조금 넓은 편이고, 경사가 얇다. 반면에 오른쪽 계단은 부 계단으로서 경사도 급하고 폭도 좁은 편이다. 경사가 얇은 주 계단은 그나마 안전하고 편안하게 오르내린다. 움직임도 의식적인 분위기와 함께 느긋하게 만든다. 바로 이 계단은 문중의 제사를 위한 의례공간을 진입하는 시작점인 것이다. 반면에 경사가 급한 오른쪽 계단은 위험성을 내포하면서 오르내리는 충동을 저지한다. 주로 양반보다는 하인들의 조속한 이동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예로서 가장 극단적인 것이 우익사의 2층 고방으로 나있는 계단이다. 이것은 흡사 사다리와 같은 형태이고, 그 폭 또한 거의 한 발만 올려놓을 수 있는 크기이다<그림 4>. 고상식 주거의 원초적 형태인 간난형 건조물의 사다리 성격과 흡사하다. 여하튼 양진당의 계단들은 경사와 폭을 조절하면서 그 성격과 쓰임새를 달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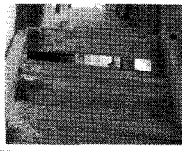



양진당의 계단은 마당공간에서 내부로의 진입을 위해 원편 계단으로 향한다. 상기한 바와 같이 이 계단은 내부공간으로 진입하기 위한 입구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툃마루와 연결되어 있다. 반면에 대산루의 계단은 우리나라에서 보기 드물게 내부 공간과 내부공간을 연결하는 실내계단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 계단은 내부공간에서 2가지의 상반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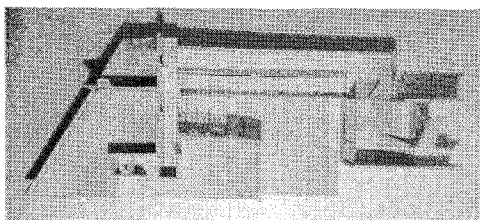
<그림 4> 양진당 고방계단

다. 첫째, 공간의 분리로서, 이것은 순수하게 수직 레벨 차이를 둔 의미에서 알 수 있다. 르 꼬르뷔제의 구세군((Salvation Army Refuge)회관처럼 하나의 층에서 계단으로 성격을 분리시킨 것은 아니지만, 1층의 강학공간과 루와 서고 등이 있는 2층 공간을 분리하고자 한 것이다. 즉, 이것은 제자가 공부하는 공간과 스승이 독서하고, 사색하는 공간을 분리한 것이다. 둘째는 공간의 연결로서, 이들 두 상이한 레벨의 바닥판을 잇는 공

<표 4> 계단의 형태와 특징

구분	그림	특징
폭		공공적 표현 - 계단 폭이 넓음으로서 문중 제사를 위한 의례적인 분위기 - 공적 성격
		사적인 표현 - 계단 폭이 좁음으로 동시에 오르내릴 수 없음 - 사적 분위기
부착 및 재료		가변적 성격 - 목재 계단 - 자유로우며, 개방적인 계단 - 다리의 성질을 공유 - 조심스럽게 오르내림
		고정된 계단 - 석재계단 - 대지에 굳게 안착된 계단 - 안정적이고 느긋함
경사		의식적이고 편안한 성격 - 경사가 얇음 - 안전하고 편안한 느낌
		급하고 위험한 성격 - 사다리의 성질을 갖는 표현 - 위험성 표현 - 선적 표현 강조

간 연결요소로서 계단이 설치되었다. 르 꼬르뷔제의 쿠르체트(Curruchet)저택의 램프처럼 분리된 매스를 연결하지는 않았지만, 직각으로 교차하는 두 매스를 결합한 독특한 예이다.<그림 5> 어떻게 보면, 이들 두 특성은 공간과 수직 동선 요소간의 상보적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다. 대산루의 계단은 내부공간에서 상이한 레벨을 연결하면서 움직임의 일으키는 동선 축이며, 방향성을 부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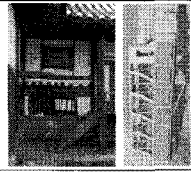





<그림 5> 쿠르체트 저택, 르 꼬르뷔제, 1949

아이젠만이 언급한 계단의 위치관계에서 보면, 양진당의 계단과 뒷마루는 부가적 기법이 적용되었다. ㄷ자형의 정침에서

계단과 뒷마루는 칸의 바깥쪽에 붙어 부가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반면에, 대산루는 삭제적 기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엄밀히 따지면 대산루는 슬라브가 절개된 삭제기법이라기 보다는 굳게 안착된 계단이 볼륨에 속하여 배치된 내부계단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실용적인 장치인 계단은 움직임 측면에서 볼 때, 내부공간을 통합하는 힘이며 인간의 보행과정을 집약하는 장치이고 분단된 바닥면을 관통하여 건축의 전체성을 경험하게 해주는 장치이다.

<표 5> 형태 및 공간과의 관계에서 계단

구분	그림	특징
형태		사선, 역등성 - 계단 슬라브의 부가 - 인방과 기둥의 직교 체계하에서 대각선의 역동적 표현
		수직, 암시, 폐쇄성 - 벽체에 의해 계단이 은닉 - ㄱ자 모양으로 암시 - 계단 자체 공간의 폐쇄성
공간		입구 - 마당 공간에서 진입을 위한 공간으로서 역할
		공간의 연결과 분리 - 강학공간과 후 공간의 연결 - 재료의 이질감으로 인한 공간의 분리

4.4. 소결

전통한옥 건축은 일반적으로 공간을 연결하는 공간축과 동선들의 축이 일치하는데, 양진당과 대산루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두 축이 직각으로 교차하고 있다. 이들 교차의 주요 동선 요소가 뒷마루와 계단이다.

양진당의 뒷마루는 내·외부공간을 시각적으로 체험하는 통합인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산루의 뒷마루는 공간의 연결과 함께 자연을 향한 시각적 감각을 확장시키면서 다용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

양진당의 두 계단은 서로 양상이 다르다. 주진입 계단은 폭이 넓고, 경사가 얇아서 제례를 위한 의식적이고, 공공적 성격을 갖는다. 반면에 동익사쪽에 붙은 계단은 폭도 좁고, 경사도 급하다. 이 계단은 남방문화적 성격인 간난형의 건조물에서 오르내리는 사다리의 성질을 공유하고 있다. 재료적인 면에서 양진당의 계단은 목재이지만, 대산루의 계단은 석재로 되어 있다. 전자는 다리의 성질을 공유하면서, 가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후자는 대지에 굳게 안착되어 고정된 느낌이다. 형태적으로

양진당의 계단은 인방과 기둥의 직교 체계 하에 대각선의 역동적 형태를 가진 반면에, 대산루의 계단은 벽체에 의해 은닉되면서 공간을 폐쇄시켰다. 계다가 재료적 이질감으로 상하층 공간의 분리를 의도하였다.

5. 결론

본 연구는 전통 한옥 건축에 대한 실측내지는 부재 조합의 관점이 아닌 건축 전체 공간 혹은 동선요소가 갖는 특성에 맞추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상주는 지리적으로 경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적 특성이 혼재되어 나타나는데, 대상 건축물인 양진당과 대산루는 남방적 성격과 북방적 특성들이 절충되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대상 건축물들은 고상식 주거형태이고, 적절하게 동선요소들이 배치되어있다. 이들을 분석한 결과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한옥 건축의 동선들은 선형적 축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양진당과 대산루의 동선 축은 일반적인 전통건축에서 나타난 진입방식과는 다르게 마당공간과 진입축이 서로 직각으로 교차하고 있다.

둘째, 양진당의 뒷마루는 ㄱ자 형태로 길게 뻗으면서 투시도적 원근감을 가진 건축적 산책로이다. 이 뒷마루는 4차원적 시간성 개념을 포함한 건축물 전체 공간을 체험하게 만드는 통합인자이다. 반면에 대산루의 뒷마루는 동선 기능은 미약하지만, 자연을 향한 시각적 인지적 확장을 위한 사색공간이다.

셋째, 계단의 경우 양진당은 전체적인 직교체계에 사선적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대산루는 벽체에 의해 가리워져 있다. 재료적 측면에서 양진당의 계단은 불안정하고 가변적인 목재 계단으로 된 반면에, 대산루의 계단은 석재를 이용하여 굳게 안착되어 안정감을 갖는다. 경사도의 측면에서 보면, 양진당의 두 계단은 서로 대조적이다. 부엌 쪽 주진입 계단은 폭도 넓고 경사도 완만하여 우리에게 편안함을 준다. 이에 반해 마당 공간 오른쪽에 위치한 폭이 좁고 경사가 급한 계단은 위험하며, 오르내리는 충동을 억제한다. 대산루의 계단은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실내계단으로서, 서로 다른 레벨의 공간적 연결을 위한 순수 동선 기능뿐만 아니라 재료적 이질감을 통한 강학공간과 사랑공간의 공간적 분리를 의도하고 있다.

한정된 사례, 제한된 이론의 적용으로 일반 해법이 아닌 특수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지만, 본 연구는 우리 전통한옥의 건축적 가능성을 파악하고, 존재 가치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봉렬, *삶과 삶의 공간 2*, (주)이상건축, 1999.
2.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열화당, 1995.
3. 임석재, *한국 전통건축과 동양사상*, 북하우스, 2005.
4. 임석재, *우리 옛 건축과 서양 건축의 만남*, 대원사, 1999.
5. 상주군, *상주 양진당 실측조사보고서*, 1981.
6. 상주시, *상주의 문화재*, 2003.
7. 우복선생기념사업회, *우복 정경세 선생연구*.
8. Thiis-Evensen, T., *Architype in Architecture*, Norwegian Univ. Press, 1987.
9. Schultz, C. N., *실존·공간·건축*, 김광현 역, 태림문화사, 1991.
10. Ching, F.D.K., *건축의 형태 공간과 규범*, 박경서 역, 건우사, 1989.
11. 토미나가 유즈루, *근대건축의 공간분석*, 고성룡 외 1 역, 기문당, 2002.
12. 이승우, *건축의 공간 및 형태구성에 있어서 계단의 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론, 1993.
13. John Templer, *Stair Shape and Human Movement*, Ph. D. dissertation, Columbia.
14. 박명덕 외 1, *조선중기 동족마을의 종가 확산 성립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7권 4호, 1991.8.
15. 윤일이, *17세기 퇴계학파의 건축관에 관한 연구-상주권 학맥을 중심으로*,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4.5.
16. 이승우, *서양 근대건축이론으로 본 조선시대 건축문화*, *한국사상과 문화*, 한국사상문화학회, 2007. 3.
17. 이창엽 외 1, *대산루의 조영 과정과 건축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1권 8호, 2005.8.
18. 정명섭, *상주 양진당 중문간 및 사랑채의 복원*, *상주문화연구* 제15집, 2005.
19. Eisenman, P., *Aspects of Modernism : Maison DOM-INO and the Self-Referential Sign*, *Oppositions* 1979 winter/spring 15/16 MIT Press

<접수 : 2008. 6. 26>